

타내고 고용일수는 전 지역에서 급격한 감소를 보여준다. 생산비 구성의 주요 구성부분인 중간재비는 전 지역에서 꾸준한 감소세를 보인다. 그럼에도 수익성을 나타내는 소득률은 연도에 따라 큰 기복을 시험하고 있다. 이는 당년도에 인삼가격의 기복으로 인한 농가의 소득감소 현상으로 판단된다.

표 52. 연도별 吉林省 지역별 인삼 생산 및 경제성(무(畝)당=667m²)

(단위: 생산량 kg, 고용일수 일, 중간재비 위안)

연도	吉林市				集安市			
	생산량	고용일수	중간재비	소득률	생산량	고용일수	중간재비	소득률
1994	586.3	531.5	3,035.7	-2.1	517.8	285.5	2,064.4	24.3
1996	784.1	583.5	3,063.1	6.3	335.0	313.9	1,755.2	76.2
1998	490.4	477.5	4,788.1	-15.4	385.0	635.0	4,809.3	-1.4
2000	537.3	287.3	4,354.0	34.6	512.0	200.0	4,941.0	45.6
2002	522.8	228.2	3,677.5	2.5	438.0	197.0	4,160.6	63.1
2004	545.4	118.2	2,323.7	30.9	491.4	190.7	3,158.2	73.7
2006	617.7	59.1	2,512.8	33.8	439.1	161.6	2,734.4	78.8
2008	588.9	54.0	2,204.7	-27.5	453.4	248.4	2,244.7	54.0

자료: 人蔘産業經濟研究 2011, 王軍

(2) 한국과 중국의 경제성 비교

2012년 한국과 중국의 인삼재배 경제성을 분석한 자료는 표 3.3-5와 같다. 한국은 4년 재배와 6년 재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0a당 수량은 중국은 1,300kg으로 한국의 625kg(4년재배), 672kg(6년재배)에 비해 108%, 93% 많게 나타났고, 이는 중국의 재배방법이 밀식직파방법 때문으로 사료된다. kg당 단가는 중국이 17,000원으로 한국의 67%(4년 재배), 41%(6년 재배) 수준으로 낮았다. 10a당 조수입은 중국이 22,100,000원으로 한국의 4년 재배에 비해서는 39% 높았으나 6년 재배에 비해서는 80% 수준이었다. 10a당 경영비는 중국이 4,666,500원으로 한국 4년 재배의 80%, 6년 재배의 32% 수준으로 낮았다.

표 53. 한국과 중국의 인삼재배의 경제성(2012)

(단위 :원/10a)

구 분		한국 4년(A)	한국 6년(B)	중국 5년(C)	C/A(%)	C/B(%)
조수입	수 량(kg)	625	672	1,300	208	193
	단 가	25,385	41,113	17,000	67	41
	부산물액	7,073	42,823	-	-	-
	금 액	15,872,698	27,642,648	22,100,000	139	80
비 목	종묘비	596,360	2,040,097	1,407,600	236	69
	비료비	578,602	754,906	30,600	5	4
	농약비	388,970	502,263	45,900	12	9
	광열동력비	165,028	250,033	153,000	93	61